

2016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교회들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10

교회의 회복

(2)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속한 유일하고 순수한 터와 그 진리들로 다시 회복됨

성경: 딤후 1:4, 유 3, 마 16:16, 골 2:9, 고후 13:14

- I.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로부터 빛나간 것과 분열적이고 변절한 터로부터 회복될 필요가 있다 — 고후 13:14, 마 16:16.
- II. 교회는 신약의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진리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 유 3, 딤후 1:4, 엡 1:9, 3:9.
  - A.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가정 행정으로서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그분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집, 가정을 가지시기 위한 것이며 이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 딤후 3:15, 엡 1:22-23.
    1. 사도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중심을 둔 것이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은 이러한 경륜으로부터 그분의 선민들을 빛나가도록 하기 위해 원수가 사용한 것이다 — 골 1:25, 고전 9:17.
    2.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 딤후 1:4.
      - a.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 있다 — 고후 13:14, 엡 3:17.
      - b.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인 하나님의 경륜은 천연적인 영역이나 율법에 속한 일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거듭남에 의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다 — 고후 5:17, 갈 3:23-26.
  - B. 유다서 3 절은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1.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 즉 모든 믿는 이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 딤후 1:4.
    2.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객관적인 믿음이다 — 유 3.
      - a.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인 신약의 내용들을 가리키며(행 6:7, 딤후 1:19, 3:9, 4:1, 5:8, 6:10, 21, 딤후 3:8, 4:7, 딤후 1:13), 우리는 우리의 동일한 구원, 일반적인 구원을 위해 그것을 믿으며,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며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이 붙들고 있다.

- b. 어떤 교리가 아닌 바로 이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 — 딤편 6:12.

**III.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진리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 마 16:16, 요 1:1, 14, 골 2:9.**

- A. 육체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전체, 곧 아버지, 아들, 영이시다 — 요 1:1, 14, 골 2:9, 딤편 3:16.
  - 1. 말씀이신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 하나님이시다 — 요 1:1, 14, 14:9-10, 15-18.
  - 2.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에서 하나님은 다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로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 딤편 3:16.
  - 3.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 골 2:9.
    - a. '신격의 모든 충만은 신격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이다.
    - b.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체현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그리스도는 신성하시며 인간적이신 분, 곧 하나님-사람이 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 요 1:1, 14, 눅 1:31-32, 35.
- C.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구속이 일 안에서 죄인들인 우리들과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 고전 15:3-4, 20, 45 하.

**IV.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분배에 관한 진리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 고후 13:14.**

- A. 신격의 삼일성은 신약에서 계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벰전 1:2, 마 28:19.
- B. 삼일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고후 13:14.
- C.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셨고 아들은 변형되어 그 영이 되셨으며 그 영은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에게 도달하신 분이시다.
  - 1. 신격의 모든 충만은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신다 — 갈 3:14.
  - 2.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 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즉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의 실재이다 — 고전 6:17, 요 16:13.

## '권위와 순복'에서 발췌한 글

우리는 반드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야 우리 자신이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다.  
(영문판 108 쪽).

모든 대표 권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대표 권위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 안에는 권위가 없다. (109 쪽).

우리 자신 안에서는 결코 권위가 없다. (109 쪽).

온 우주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109 쪽).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떠한 권위라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결코 속임을 당하지 말라. 어떤 권위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근원이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17-118 쪽).

사람이 어느 정도 권위를 대표하는가는 하나님의 뜻과 사상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110 쪽).

대표 권위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111 쪽).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여러분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전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111 쪽).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12 쪽).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반드시 ...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112 쪽).

주님께서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파쇄하셔야 한다. 그 후에야 우리는 그분의 대표 권위가 될 수 있다. (113 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지, 그분의 권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113 쪽).

권위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은 교통이다. (115 쪽).

하나님의 대표 권위들은 ... 반드시 주님과 지속적이며 친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115 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추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없다. (120 쪽).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세운 권위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세우시도록 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는 어떤 권위도 세우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120 쪽).

다른 이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후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변호하는 이들은 대표 권위가 될 자격이 없다. (124 쪽).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이들은 결코 권위가 없다. (125 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위라고 더 생각할수록 그는 더욱더 권위에서 멀어진다. (126 쪽).

대표 권위는 결코 자기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말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141 쪽).

하나님의 대표 권위들은 은혜를 베푸는 이들이다. (142 쪽).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대표 권위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른 이들을 의로 대하는 이들은 대표 권위가 될 자격이 없다. (142 쪽).

권위의 기초는 부활이다. (144 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권위를 준다. 권위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사람을 통해 나타난 부활과 관계가 있다. (144 쪽).

우리가 권위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를 영적 권위로 세우는 것이 전혀 없다. (145 쪽).

부활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활의 원칙을 범하는 순간 우리는 권위를 상실하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즉시로 권위를 상실한다. (150 쪽).

부활을 가질 때 권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권위는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부활에 달려 있다. (150 쪽).

오직 부활에서 나온 것만이 권위를 가져 온다. 권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활에 근거한다. (151 쪽).

부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로서 행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 부활 생명이 더 표현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152 쪽).

권위는 함당하게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 (154 쪽).

권위를 잘못 대표하는 것보다 더 엄중하고 심각한 것은 없다. (157 쪽).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157 쪽).

사람의 권위는 그의 사역에 근거하며 그의 사역은 부활에 근거한다. 부활이 없으면 사역이 없고 사역이 없으면 권위가 없다. (159 쪽).

권위가 사역을 넘어서는 순간, 그 권위는 위치적인 권위가 되며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권위가 아니다. (160 쪽).

대표 권위는 하나님 앞에 위치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처럼 동일하게 낮고 겸손한 것이다. (167 쪽).

어떤 사람이 항상 자신의 권위를 의식한다면 그는 권위가 될 자격이 없다. (169 쪽).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는 불쾌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불쾌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당신이 권위를 받았는데 어떤 불쾌함도 당할 수 없다면 당신은 권위가 될 자격이 없다. (171 쪽).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수록 그 사람에게 권위를 더 맡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권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는다. (183 쪽).

권위가 되는 자격은 자신이 무능하고 자격없음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한다. (186 쪽).

대표 권위와 관련하여 주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201 쪽).

대표 권위는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201 쪽).